

루마니아 중보기도 24시: 5월을 넘어서 6월로

빠체 보우어! (루마니아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5월의 푸르름도 잠시 이젠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듭니다. 갯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 영적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어머니 학교 2기를 무사히 마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단의 역사로 회오리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학교 2기 준비기도를 하면서 봉고차로 섬겨야 할 비오렐과 부인 제따가 강도 8.5의 지진을 몰고왔습니다. 세례교인들을 모두 집합시켜서 두사람의 행동과 언어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단적 선동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두번 다시 사단의 노예로 교회를 핍박하고 저주하지 말것을 교육했습니다. 집시들의 고질적인 병이 도진것이지요. 자기 생각과 뜻대로 안되면 믿음도 하나님도 다 저버리고 무조건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욱하고 저주하는 인간의 부패한 죄성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알곡과 쪽정이를 체질하시고 갯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를 한걸음 업그레이드를 시키셨습니다. 크라이오바 2기를 마치면서 아직까지도 어머니 학교 스태프로 섬겨야 할 지체들 가운데 섬김과 연합의 의미를 이해하려 들지 않고 자기교회 행사로 내것을 챙기는 사역으로 이해하려는 습성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것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 교회를 섬김으로 어머니들이 변하여 교회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연합사역이기를 기도합니다.



2. 지도자 학교/청소년 문화센터 건축은 갯세마네 가족 개미역사로

엘레나 전도사님의 전적인 헌신으로 지도자 학교/청소년 문화센터 건축이 조금씩 조금씩 개미역사를 통하여 벽돌이 한장 한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는 하지와 싸미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 했다가 콘크리트를 한삽 한삽 비벼서 넣곤합니다. 주말이면 6-11학년 9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꼬스띠는 자매들과 예배를 드리고 남자들은 모두 콘크리트 공사장으로 투입되어서 비지땀을 흘리며 피땀으로 건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두주간에 걸쳐 야간 철야작업까지 강행군을 하면서 5월안에 기둥 콘크리트 마무리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더라도 갯세마네 가족공동체는 한기둥 한기둥 그 수를 줄여가며 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3. 네비우스 선교정책 실현의 몸부림 “생명회복 미생물 유기농법교육”

6월 1-8일까지 1차 이론 교육을 위하여 러시아 김영원 선교사님과 동역하시는 박 마이클 목사님께서 겿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를 다녀가셨습니다. 70연세에 걸맞지않게 30대처럼 씩씩하고 젊으신 김영원 선교사님의 활기찬 모습속에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시오실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때가 임박함을 애달라 하시면서 신부로서 단장해야 함을 거듭강조하시면서 말씀으로 배블리 먹여주신 박 마이클 목사님의 삶속에서 기도만이 생명줄인것을 다시 못을 박아주셨습니다. 1기 미생물 교육을 마치면서 겿세마네 공동체 식구들에게 남은 숙제는 2기 실습과 이론 교육을 위하여 흙 3톤을 준비하는 일과 낙엽 500kg과 밀과 옥수수 등겨 500kg을 준비해야 하고 밀집도 500kg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를 제작하여 준비하는 것은 필수과목이 되었습니다. 생강과 마늘을 이용한 가나안 액비 만드는 과정을 학습했고 계피와 감초와 당귀로 만드는 가나안 액비는 재료가 없어서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 창영이 한테 EMS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 노아처럼 살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말씀따라 순종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두분 노종들의 삶속에서 큰 도전을 받은 저와 심은식 선교사와 엘레나 전도사는 철야기도회와 아침 경건회를 6월 15일 부터 3개월 방학동안 겿세마네 식구들과 함께 쌓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20년동안 가난과 배고픔의 저주를 끊고 에덴동산의 하나님 천국을 이루는 사역을 이제서야 그 한을 풀게되었습니다. 한국의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주도하셨고 40년을 농업 개발에 일생을 투자하신 김영원 선교사님을 들어쓰시고 마지막때에 환란을 준비하며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전수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4. 여름방학이 다가오면 당연히 기다리고 가슴 설래이는 제네바 한인교회 아웃리치

꼬스띠가 주일 교사회를 하기전에 물었습니다.“ 따띠 끈드비네 비쎌리까 제네바?”(아빠 제네바 교회 아웃리치 언제와요? “피올레 누마이 쉬띠우 은꺼 나 지스 니믹”(아들이 모르겠다 언제 올런지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교사회가 시작되었는데 하지가 또 묻는다. “따띠 비쎌리까 제네바 누마이 비네?”(아빠 제네바 교회 이제 아웃리치 안와요?) “누 쉬띠우 네루검”(아직 모르겠다. 기도하자). 옆에서 떠드는 소리에 못알아 들은 발리가 또 물어본다. “따띠 비쎌리까 제네바 끈드 비네 아눌 아차스띠?”(아빠 제네바 교회 올해 언제와요?) “머이 피올레 나이 아우질 끈 암 보르빗뜨 꾸 하지? 누 쉬띠우. 로아거떼”(아따 참말로 아들이 못들었냐? 하지랑 금방 얘기했잖여? 나도 잘 몰라 기도나 해). 그동안 제네바 한인 교회는 갯세마네 집시교회공동체의 Mother Church로서 사명을 감당해 주었고 9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9명의 자녀들에게는 모유가 필요하고 저들이 걸음마를 하고 혼자서 밥을 먹고 학교를 갈때까지는 아직 향후 10년 저들을 지켜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제네바 한인 교회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갯세마네 집시교회를 위해서 쏟으신 피와 눈물과 땀이 결코 헛되지 않고 갯세마네 집시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제네바 한인 교회 화이팅! 2014년 아웃리치를 기대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9명의 자녀들이 가슴 설래이며 아웃리치 팀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5. 런던 재영 한인교회 연합회 아웃리치

6월 23-28일 한주간 동안 런던 재영한인교회연합회에서 아웃리치를 옵니다. 30명으로 구성된 연합팀이 오전에는 유치부와 1-4학년 여름 성경학교를 돕고 오후에는 청소년들을 3개지역으로 나누어서 전도를 하여 교회로 모여 전도집회로 구원초청을 하게 됩니다. 저녁에는 낮에 전도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펠로우십을 통하여 교회문화를 익히고 개인 구원초청으로 이끄는 아웃리치가 될 것입니다. 근로 팀은 지도자학교/청소년 문화센터 건축하는 일과 7명이 할수있는 인조축구장 울타리 공사일을 돕게 됩니다. 할렐루야 도암네 아주띠!(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6. 성경적 세계관으로 면소재지 변화를 추구하는 사역들

1) 6월 1일 어린이날 행사

124명의 초청 어린이 가운데 70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여서 하루 어린이날을 함께 즐겼습니다. 하루종일 비가내리는 통에 실내에서 행사를 치뤄야 했습니다.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다 소화시키긴 했지만 좁은 실내공간에서 마음껏 뛰지는 못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섬긴 교사들을 축복하고 참여한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2) 길거리 청소

“면소재지를 깨끗하게” 라는 모토아래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일차 청소를 했습니다
10년후에 변화시켜야할 면소재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하나를 모으고 주우면서
10년후에 변화될 거리를 떠올리며 청소를 했습니다. 참석한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청소가 끝나고 반별로 모여서 아이스크림으로 더위와 수고를 씻어냈습니다.





3) 학부모 초청 세미나

낮에 일하러 다니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일거리가 없는 농한기 12월로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선물 준다면 너도나도 앞다투어 참석 하지만 그냥 오라고 하면 아예 초청장을 보지도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 들인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보다 더 어려운 숙제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받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4) 집집마다 쥐 벼룩약치기

며칠간 비가 내리더니 모기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걱정입니다. 마당의 풀을 베고 약을 쳤지만 통하지가 않습니다. 덥지만 긴옷을 꺼내 입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미생물 유기농에 성공하면 면소재지 화장실부터 냄새 안 나고 파리 모기 없는 환경으로 바뀌줘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도암네 아주떠!(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7. 향후 10년 루마니아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비전

루마니아 4기 아버지학교/3기 어머니학교 개설신청을 끝내고 중보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켈러라시 주에 3개교회 연합으로 아버지학교/어머니학교를 하게됩니다. 1기를 수료한 로베르트 형제와 바실레 형제 교회에서 각각 10명 씩 지원을 하고 2기를 수료한 율리안 형제 교회에서 10명이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자들의 일손을 피해 금-주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1월 14-16일은 어머니 학교 3기를 그리고 11월 28-30일은 아버지 학교 4기를 개설합니다. 식사와 간식비를 비롯하여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이 연결되기를 기도합니다.

6월 16-17일은 1박 2일로 1-3기 동기회 상반기 모임을갖고 향후 10년 사역을 위한 연구와 의견을 함께 모으고 서로를 더 가까이 알아가고 섬기고 연합하기 위하여 친교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8. 철야기도와 경건회로 여름 영적전투 진지를 사수합니다

미생물 교육차 다녀가신 박 마이클 목사님과 김영원 선교사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따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여름 갯세마네 영적 전투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고 함께 싸우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엘레나 전도사를 중심으로 9명의 자녀들이 3개지역 목자들로서 우선 회개하는 삶을 실천하고 매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일하는 영적 삶으로 훈련되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를 실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124명의 유치부에서 11학년까지의 3개지역 양떼들을 풍성하게 쌀찌우며 개인 구원으로 이끌고자 함께 그 목적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갯세마네 집시교회공동체가 면소재지 안에서 어린이들 교육과 관리를 제일 잘한다는 소문에 이름만 있고 죽은 교회라는 불명예를 씻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항상 함께 거하시는 개인 교회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면소재지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개월간의 합숙훈련과 고된 노동과 기도영성 훈련으로 한사람의 낙오자가 없이 모두 기쁨으로 하루하루 힘든 훈련을 참고 견디어서 졸업할 수 있도록 후방 병참지원으로 함께 레슬링 하시는 중보기도 식구들의 힘찬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2014년 6월 15일 - 2014년 9월 15일)

시간	기도와 실천	시간	기도와 실천
05:30	경건회	16:00	체력단련 스포츠
06:00	개인기도	17:30	저녁식사
06:30	아침식사	18:00	노동
07:00	노동	21:00	샤워
12:00	점심식사	22:00	철야기도
13:00	오침	24:00	취침

9. 여름방학 3개월 홈스쿨 시동 걸었습니다.

방학때만 되면 선교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홈스쿨 과외 프로그램입니다. 영어와 수학, 불어와 한국어, 기타와 피아노, 드럼 그리고 임마누엘 축구팀과 어린이 성가대 등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개인구원 초청에 온 힘을 다 쏟아 붓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어느해보다도 알찬 홈스쿨 과외가 되어서 한사람도 낙제하지 않고 학업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10. 엘레나 전도사님이 쓰러지다

6월 9일 월요일 그동안 미루어 오던 병원 입원차 새벽 첫차를 타고 수도 부카레스트에 갔습니다. 마침 공휴일이라서 병원 입원이 안되어서 하룻밤을 지내고자 이혼한 남편한테 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저녁 10시경 샤워를 하고 취침에 들어가자 샤워하고 나오다가 그대로 쓰러졌답니다. 구급차를 불러서 다행히 산소호흡을 할수가 있었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혼수상태에서 맥박만 뛰고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밤 11시경에 큰아들 스테피한테서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사랑하는 아내와 큰아들 꼬스티 둘째 하지 셋째 싸미를 테우고 병원을 향했습니다 새벽 2시에 병원에 도착했으나 병실을 들어갈수가 없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기도를 하고싶다고 사정사정해서 허락을 받고 들어가보니 산소호흡기가 생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전기충격이 가해지면 눈을 떴다가 다시 의식을 잃곤 했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 아버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집시들의 가난과 배고픔과 저주의 대물림의 뿌리를 끊어서 에덴동산을 회복할 미생물 유기농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엘레나 전도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9명의 아들딸들이 엄마만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동안 폭 쉬고 싶었고 잠을 폭 자고 싶어했었는데 예수님처럼 3일 동안만 폭 자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자는 동안 천국을 보여주시구요 지옥도 보여주셔서 겿세마네와 면소재지와 루마니아와 지구촌을 향하여 마지막 때 천국 메시지를 전하도록 아버지께서 꿈속에서 만나 주시고 상담해주세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과 한국 선교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전 남편과 3명의 자녀들까지도 회개하고 가정구원을 이루게 해 주세요. 3일 동안 자게 해 주시고 병원에서도 소망이 없다고 이

미 판정을 했으니 아버지의 전능하심만을 선포할수 있도록 아버지가 전도사님의 생명을 주관해 주세요. 이 모든것이 철저하게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꾸미신 일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목요일날 깨어나서 금요일날 하루 더 병원에서 쉬고 토요일날은 잠에서 깨어난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왔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아버지 딱 3일 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중보기도 식구들이여!

동구전선 루마니아 갯세마네 전진기지는 이름없이 빛도없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오늘도 복음의 밭고랑을 묵묵히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내 믿음 굳게 지켜 신부로서 신랑맞을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안보여도 루마니아 선교역사를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분의 약속만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필요한 물질도 그리고 영적능력도 부단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은혜도 그리고 매일 말없이 흐르는 눈물속에 의미하는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있기에 버티고 또 버티고 오늘도 영적전투에 승리를 만끽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중보기도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창수 심은식 선교사 드림